



CHINA WATCHING

사이버/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 강화

- ◆ 사이버 공간에 대한 보안 강화
 - 2017년 6월 인터넷안전법(网络安全法)은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 인터넷 기업에게 감시 카메라, 안면 인식,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감시 업무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구
 - 공산당이 지배구조 및 경영방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 ◆ 인터넷 주권을 강조
 - 제4회 세계인터넷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王沪宁)은 사이버 공간의 보안과 질서를 위한 인터넷 주권을 강조
 - 2017년 초부터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VPN 앱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Skype) 앱까지 삭제
 - 중국에서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internet)이 내부 전산망(intranet)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
- ◆ 민족주의 감정에 주의
 - 벤츠 자동차: 인스타그램 광고에 인용된 달라이 라마의 경구(“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보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열릴 것이다”)에 대한 비판을 받은 후 “이 사건이 중국 내 메르세데스-벤츠 직원들을 포함해 중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웨이보를 통해 사과
 - 메리엇 인터넷서널: 고객 설문 조사에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과 티베트를 독립적 국가로 표시하자 중국 사이버관리국이 중국어 웹사이트 1주일 폐쇄 명령,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의와 불매 운동에 직면

4. 시진핑 집권 2기 한중 경제관계의 재조정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와 한중 수교 25년을 기점으로 한중 경제 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도래

- ◆ 중국 경제가 세계 최대인 동시에 세계 최고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대중 경제 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됨
 -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 저렴한 노동력과 낮은 투자비용에 중점을 둔 가공무역 방식이 근본적 한계에 봉착
 - 공급측 개혁의 중속 성장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동반 성장 전략이 필요

차이나 엑시트(China Exit)가 아니라 차이나 인사이더(China Insider)가 필요

- ◆ 사드 보복 이후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또는 '중국 더하기 하나'(China plus One) 전략은 중국 밖에서 가공무역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
 - 미국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는 기술 유출과 사이버 보안 문제 등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기술 개발, 자본 유치 및 투자, 인력 교류 등 다양한 종류의 협력 관계를 더욱 더 확대
 -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항해왔던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중국 내 사업의 확대를 위해 순응하는 방향으로 선회

중국 경제가 세계 최대인 동시에 세계 최고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대중 경제 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됨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시진핑 2기 대중 경제전략: 한중 동반성장 전략 2.0

이왕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 제언

1. 문재인 정부 출범과 대중 관계 개선 추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在中国制造)에서 메이드 위드 차이나(Made with China: 和中国制造)와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 为中国制造)로 전환이 필요

- ◆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중국 기업과 직접 경쟁을 하기 보다는 중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모색
 - 중국 기업과 합작의 확대를 통해 중국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선호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 4차 산업 혁명의 선두에 있는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교환과 특허권 공유의 확대를 통해 기업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형성
 -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을 찾아 설립 초기부터 과감한 자본 투자 시도
- ◆ 사드 보복 조치 이후 한중 경제관계는 침체와 재도약 사이의 기로에 직면
 -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이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왔으나,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관계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사드 보복 이전인 2015/16년 각각 -2.7%, -6.4% 감소했던 수출이 보복 효과가 증폭된 2017년에는 6.8% 증가
 - 2013년 이후 지속해 왔던 중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2017년에도 유지하는데 성공
 -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5/16년 각각 10.9%, 10.4%에서 9.9%로 낮아져, 일본(8.9%), 미국(8.7%), 대만(7.8%)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정책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한중 동반성장 방안이 필요
 -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무역을 줄이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과 같은 산업정책과 부합할 수 있는 경제협력 체제 구축
 - 양국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다층적 교류협력 채널을 확대
 - 기업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在中国制造)에서 메이드 위드 차이나(Made with China: 和中国制造)와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 为中国制造)로 전환이 필요

2012년 일본과 같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다변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벌려 놓았던 일본과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물론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중국을 우회하는 전략은 세계 시장으로 다변화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귀결될 위험을 내포

다변화(diversification) 정책은 신중해야: 일본과 대만

- 조어도(센카쿠열도) 사건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2012년 이후 중국 의존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중국의 대 일본 수입규모는 8.6% 급락, 2010년 수준으로 복귀
- 중국의 對한국 수입액은 2011년 17.6%, 2012년에도 3.7% 성장하여,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등극
- 2012년 일본과 같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다변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벌려 놓았던 일본과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물론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1990년대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남방정책과 유사하게, 2016년 차잉원 총통의 신남방정책도 경제적 측면에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한중 동반성장 전략 2.0을 위한 서향(西向: Look West) 정책

- 중국이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되면, 중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품은 다른 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
-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더라도,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에 직면하는 경우가 더욱 더 빈번해짐
- 중국을 우회하는 전략은 세계 시장으로 다변화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귀결될 위험을 내포

내용 분석

1.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경제 정책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공식화

-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시자진(习家军)으로 평가되는 왕치산(王岐山) 전 서기와 류허(刘鹤) 주임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 시 주석의 권력 강화는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과 금융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강조는 사이버 보안, 인터넷 주권, 민족 감정 강조 등의 정치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가능성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와 한중 수교 25년을 기점으로 한중 경제 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도래

- 중간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및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정책은 수교 후 25년 동안 가공무역에 기반을 둔 한중 동반성장 전략 1.0과 상충
- 공급측 개혁의 중속 성장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
- 사드 보복 이후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또는 '중국 더하기 하나'(China plus One) 전략은 중국 밖에서 가공무역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
- 차이나 엑시트(China Exit)가 아니라 차이나 인사이더(China Insider)의 관점에서 한중 동반성장 전략 2.0을 모색해야 함

2.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경제 정책의 변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 강화 가속화

- ◆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党章)과 헌법에 명기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

- 헌법 제79조 3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되어 시 주석이 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 5~10년 이상 더 집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확보
- ◆ 경제정책에서도 시자진(习家军)이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제치고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부주석,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국무원 부총리에 취임
 - 왕치산 부주석은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건설은행 행장, 국무원경제개혁판공실 주임을 역임했기 때문에 경제 및 금융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
 - 류허 부총리는 2015년 이후 공급측 개혁의 전도사로 활동: 인민일보(人民日报) 2015년 5월 25일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五问中国经济), 2016년 1월 4일 공급측개혁에 관한 7가지 질문(七问供给侧结构性改革), 2016년 5월 9일 권위인사가 현재 중국경제를 논한다(权威人士谈当前中国经济)의 필자로 추정
 - 류허 부총리는 취임 전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기초연설을 했으며, 2월 말에는 미중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사절단 대표로 미국을 방문
- ◆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 공급측 개혁과 금융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확보
 -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우선
 - 수출보다 내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국유기업보다 민간기업의 비중을 강화하는 기초를 유지
 - 성장률 저하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어, 2018년 성장률 목표를 국제통화기금(IMF)가 예측한 6.6%보다도 0.1% 낮은 6.5%로 설정
- ◆ 2015년 중시 대폭락, 2016년 대규모 외화 유출, 부채 급증 등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
 - 금융관리감독 기구를 인민은행과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보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즉 1행3회(1行3會) 체제에서 금융안전발전위원회(금안위), 그리고 인민은행과 은보감회, 증감회, 이렇게 1위1행2회(1委1行2會) 체제로 개편
 - 류허 부총리(정보통신·금융·운송·인력 담당)가 금융안전발전위원회(金融稳定发展委员会) 주임을 겸직할 경우 시진핑 주석은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경제정책에서도 시자진(习家军)이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제치고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 공급측 개혁과 금융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확보

3. 시진핑 집권 2기: 기회와 도전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확보

- ◆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하고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회피하기 위한 개혁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사오강 사회 건설: 소비, 유통, 교육, 고용, 보건 등에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 인터넷강국: 디지털 경제의 확대·심화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력 기회 확대
 -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형성: 일대일로가 당장에 삽입됨으로써 연선 국가로 진출할 가능성 증대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을 방지하고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회피하기 위한 개혁 정책의 지속적 추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적 사상에 내재된 정치적 리스크

- ◆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적 사상의 구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는 해외기업에게 정치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음
 - 사회주의 문화강국: 문화컨텐츠 등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는 한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인터넷강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서 중국 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경쟁이 강화
 - 기업지배구조 변화: 영미식 지배구조와 다른 새로운 지배구조(공산당 조직 및 정부 지분 확보)의 등장으로 다국적 기업의 적응이 필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적 사상에 내재된 정치적 리스크

- ◆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적 사상의 구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는 해외기업에게 정치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음
 - 사회주의 문화강국: 문화컨텐츠 등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는 한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인터넷강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서 중국 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경쟁이 강화
 - 기업지배구조 변화: 영미식 지배구조와 다른 새로운 지배구조(공산당 조직 및 정부 지분 확보)의 등장으로 다국적 기업의 적응이 필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적 사상의 구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는 해외기업에게 정치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음